

□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문제점

“기계설비법” 제정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수만 명을 모집해주고,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해주고, 부정한 청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기계설비의날”도 제정되었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인단 모집 공문 붙임 호소문에는 기계설비공사업 종사자 30만 가족 수 환산시 10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최대 100만명이 문재인을 지지하게 한것임)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①**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2. 2.>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해마다 1년에 1번씩 돈주고 받아야 됨(의무사항임)

기계설비사업자가 설치해놓고 기계설비사업자가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성능점검을 돈 받고 하는 것이다.

-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자기들이 성능점검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
-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성능점검을 하는 자를 돈 받고 교육 시킨다고 하고 있음
- 기계설비법을 제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돈을 주고 강제로 받게 하고, 협회는 점검하는 자를 돈을 받고 교육시키게 하여 기계설비사업자와 기계설비협회에 연간 수백억원을 배터지게 돈을 벌 수 있게 하였음.

※ 기계설비법 개정과 기계설비의날은 폐지되어야 됨

- 부정한 청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기계설비의 날”이 제정되어 전 국민이 돈을 주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게 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기계설비의 날”은 폐지되고, “기계설비법”을 개정하여 성능점검을 무료로 하고,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해야됨. (성능점검을 기계설비사업자와 사업자의 직원들이 하고 있음)
-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자기들이 성능점검을 하니까 무료로 해야됨
-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면됨

※ 가스점검도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받는데 공급업체가 무료로 하고 있음.

※ 소방점검도 소방서에서 무료로 소방점검하고 있음